



6월 순환매 이후 스타일 전략: 증권·자동차에 주목



자산배분/스타일전략 김중원

02) 3787-2290

simon@hmsec.com

Executive Summary

1. 6월 업종 수익률: 중형·내수·방어 업종 상대 강세

- 6월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4.2%, -4.3% 하락한 가운데, 중형가치(-0.5%)와 중형성장(-0.6%)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 기록
- 업종별로는 백화점(+21.1%), 은행(+5.8%), 보험(+5.1%), 통신서비스(+2.2%), 호텔/레저(+1.2%) 등 내수·방어·정책 기대 업종 중심의 순환매 진행
- 6월 강세 업종은 정책 기대, 금리 상승, 내수·관광 회복 등 개별 모멘텀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

2. 6월 강세 업종 분석: 주가 모멘텀의 지속 가능성 점검

- 백화점은 6월 +21.1% 상승했으나 ROE는 3.7%에서 4.3%로 소폭 개선에 그쳤고, 은행·보험·통신서비스도 ROE 개선 제한과 PER 부담 확대 확인
- 호텔/레저는 원화 약세와 외국인 관광 수요 기대가 유효하며, ROE 개선 확인은 필요하나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

3. 하반기 관심 업종: 증권과 자동차의 재평가 가능성

- 증권 업종은 6월 -6.2% 하락했으나 12개월 선행 ROE가 11.3%에서 15.0%로 개선되며 이익 모멘텀 확대
- 자동차는 6월 -11.6% 하락했으나 PBR 부담은 제한적이며, 피지컬 AI 기대와 펀더멘털 바닥 통과 가능성에 주목

4. 투자전략 결론: 6월 강세 업종은 선별, 증권·자동차는 대안 업종으로 관심

- 6월 강세 업종 중 백화점·은행·보험·통신서비스는 단기 모멘텀은 유효하나, ROE 개선과 밸류에이션 정당화 여부 확인 필요
- 호텔/레저는 외국인 관광 수요 기대와 제한적인 밸류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 확대, 증권은 ROE 개선과 주주환원 기대를 바탕으로 비중 확대
- 자동차는 피지컬 AI 기대와 펀더멘털 바닥 통과 가능성을 감안해 점진적 확대가 유효하다는 판단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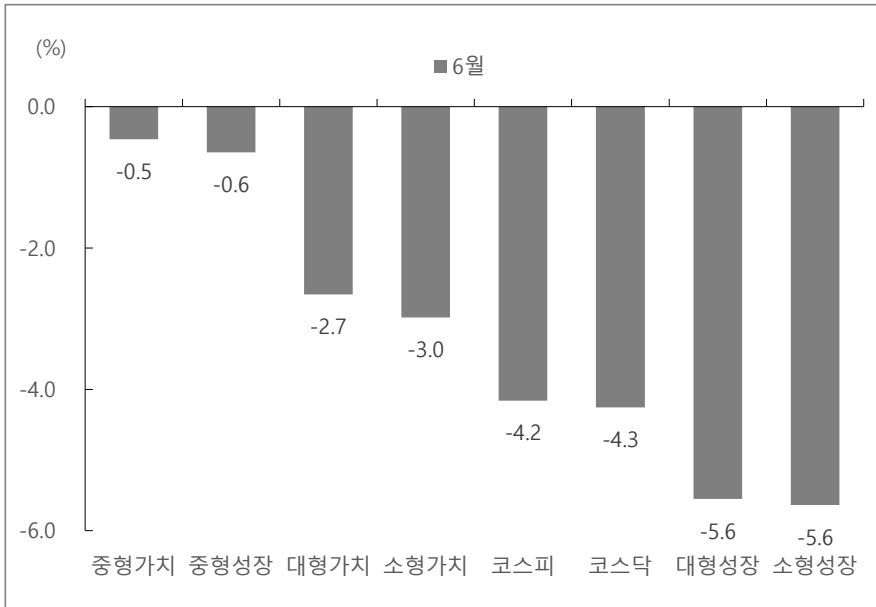


GLOBALITY

6월 스타일 및 업종 동향: 중형 · 내수 · 방어 업종 상대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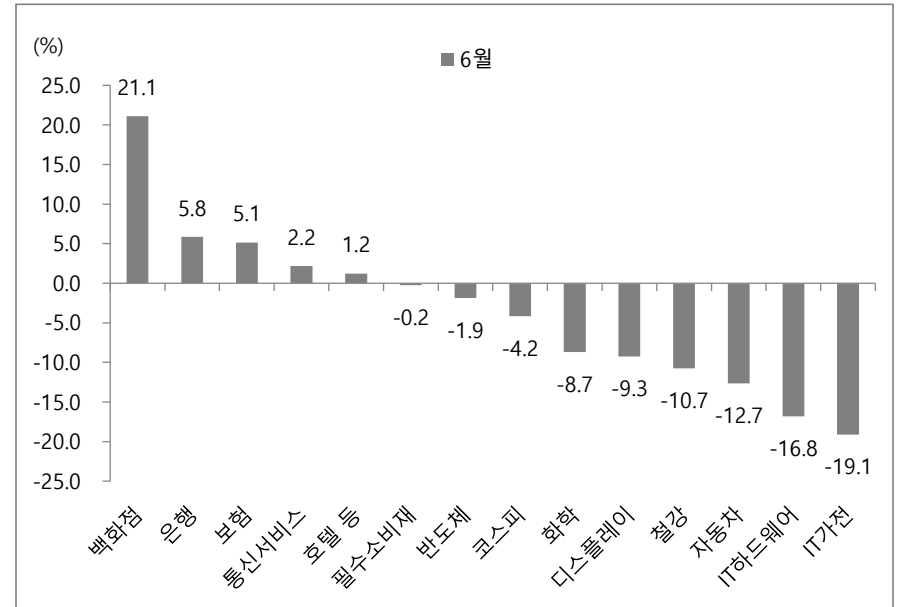
- 6월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4.2%, -4.3% 하락한 가운데, 중형가치(-0.5%)와 중형성장(-0.6%)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대형 성장 · 가치 대비 강세
- 업종별로는 백화점(+21.1%), 호텔/레저(+5.8%), 보험(+5.1%), 통신서비스(+2.2%), 화장품(+1.2%) 등 내수 · 방어 · 정책 기대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IT가전(-19.1%), IT하드웨어(-16.8%) 등 IT 업종은 부진
- 6월 강세 업종은 정책 기대, 금리 상승, 내수 · 관광 회복 등 개별 모멘텀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며, 하반기 투자전략 관점에서는 해당 모멘텀이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

6월 시총별 가치 · 성장 스타일 수익률 비교



주: 6/12일까지 수익률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se, 현대차증권

6월 주요 업종별 수익률 비교



주: 6/12일까지 수익률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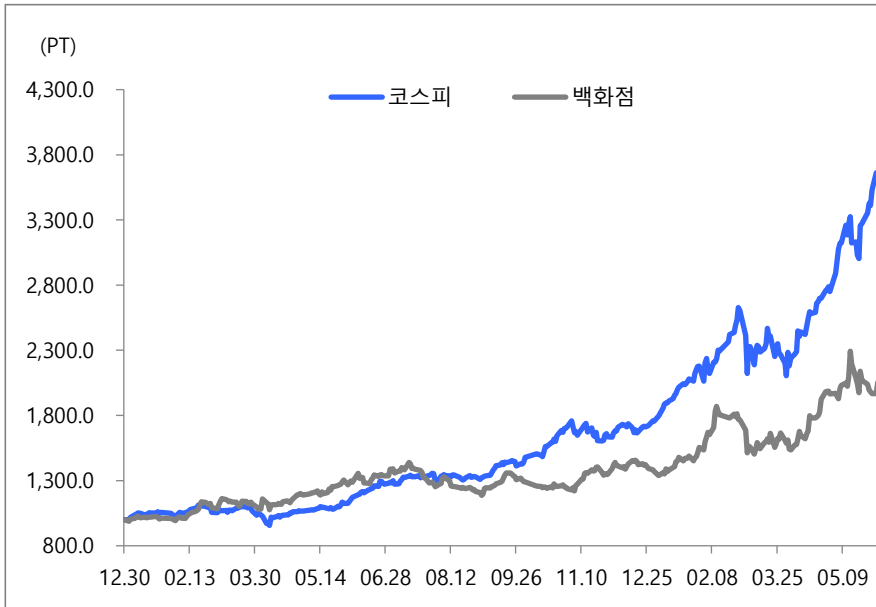


**6월 강세 업종 분석:
주가 모멘텀의 지속 가능성 점검**

백화점, 소비 회복 기대가 주가를 앞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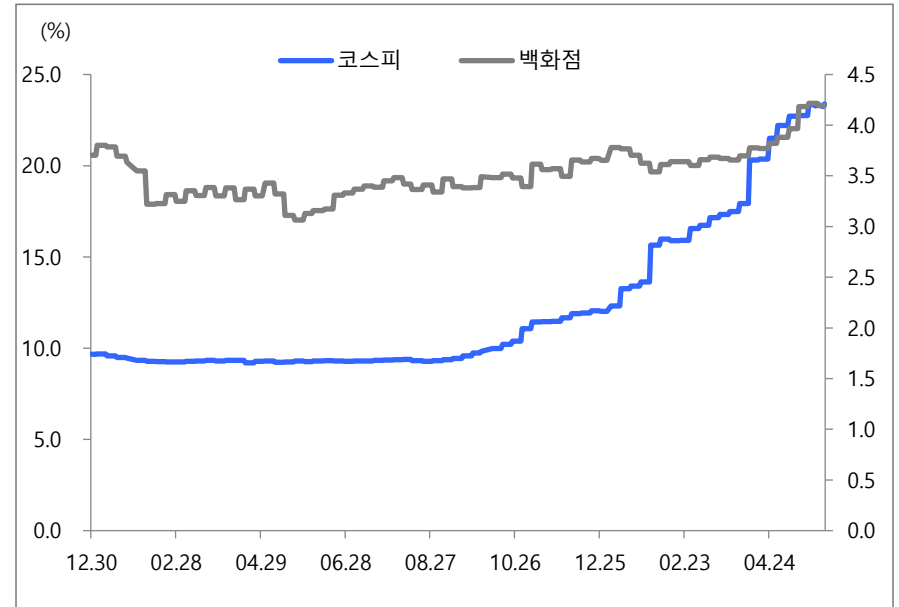
- 최근 백화점주는 중시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와 외국인 관광객 매출 증가, 반도체 기업 성과급에 따른 명품·패션 소비 확대 기대가 맞물리며 강세
- 특히 6월 백화점 업종은 +21.1% 상승하며 코스피 -4.2%를 크게 상회해, 소비 회복 기대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
- 반면 2026년 초 이후 백화점 업종의 12개월 선행 ROE는 3.7%에서 4.3%로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쳐, 코스피 ROE 12.0% → 23.6% 대비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
- 백화점 업황과 개별 기업 실적 개선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업종 ROE는 여전히 낮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최근 주가 급등 이후에는 실적 개선의 지속성과 밸류에이션 정당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

2025년 이후 코스피와 백화점 업종 주가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25년 이후 코스피와 백화점 업종 12MF ROE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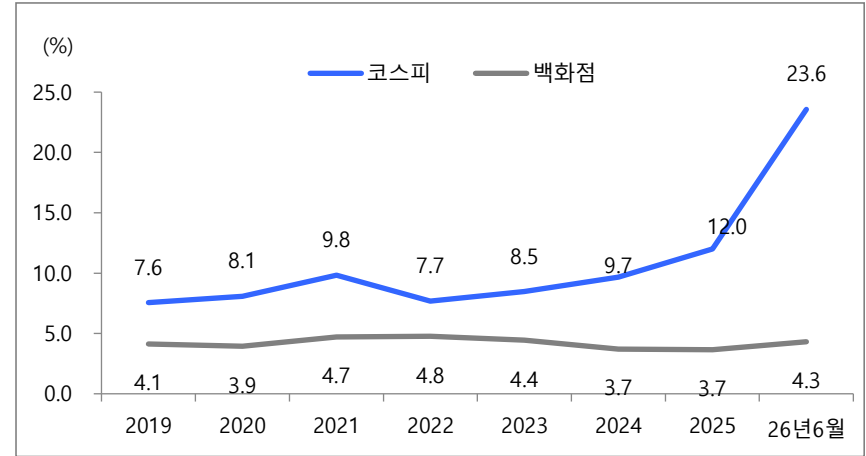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백화점, 낮은 ROE에도 PER 할증 부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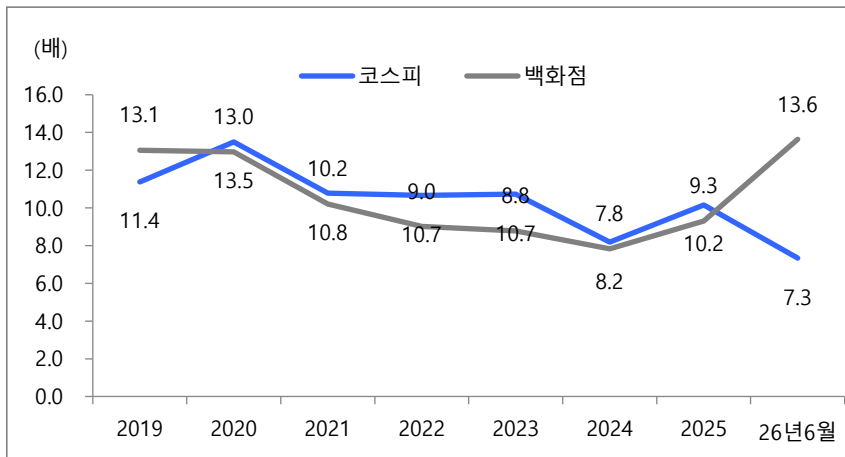
- 2019년 이후 백화점의 12개월 선행 ROE는 평균 4.2%로, 코스피 평균 9.0% 대비 -4.9%p 낮은 수준 지속
- 2026년 6월 백화점 ROE는 4.3%로 코스피 23.6% 대비 -19.2%p 낮아, 수익성 격차가 크게 확대
- 12개월 선행 PER은 2019년 이후 코스피 대비 평균 -5.6% 할인 거래되었으나, 현재는 +85.8% 할증 거래되며 가격 부담 확대
- 12개월 선행 PBR은 코스피 대비 평균 -55.9% 할인에서 현재 -65.9% 할인으로 확대
- 낮은 ROE를 감안하면 저평가 매력으로 해석하기는 제한적

2019년 이후 코스피와 백화점 12개월 선행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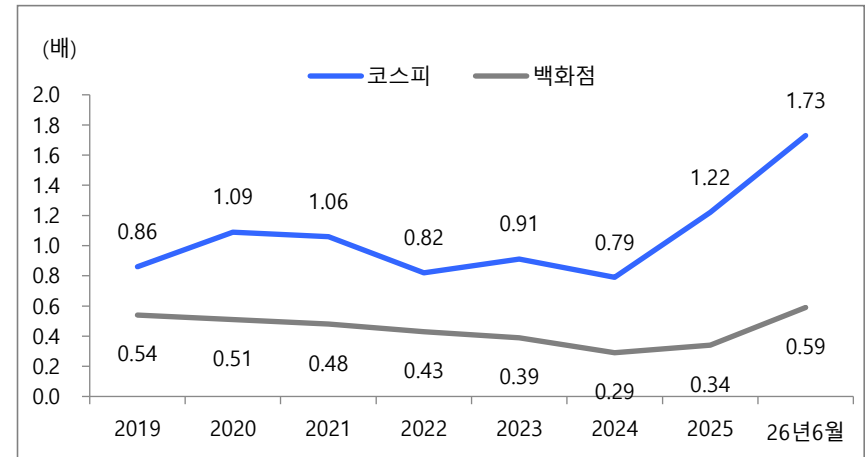
자료: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19년 이후 코스피와 백화점 12개월 선행 PER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19년 이후 코스피와 백화점 12개월 선행 P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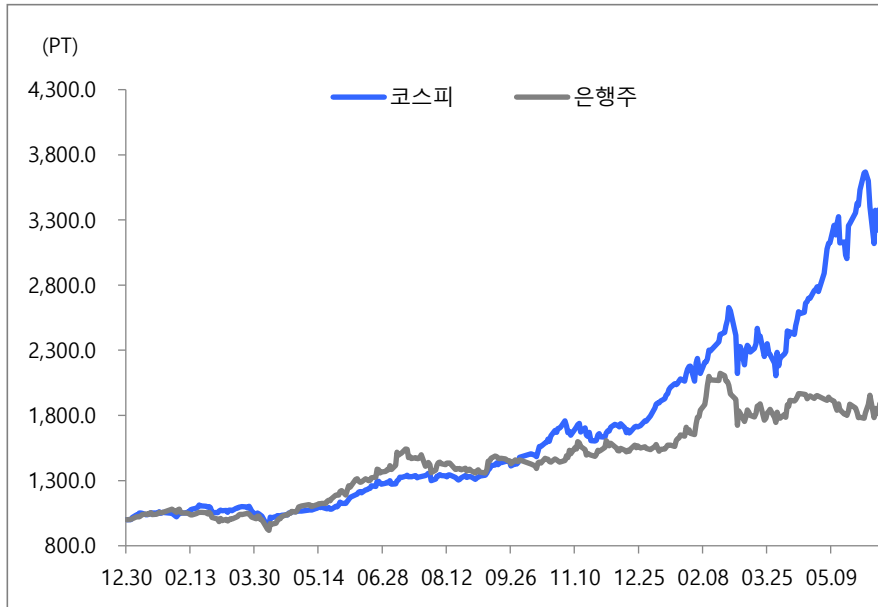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은행, 금리 상승 수혜에도 ROE 개선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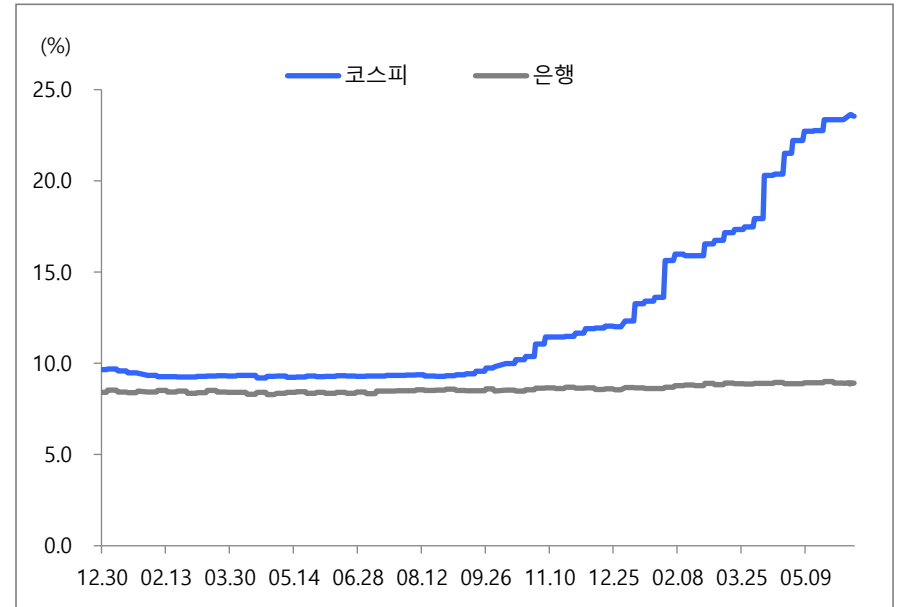
- 2026년 은행 업종은 +22.2% 상승했으나 코스피 +92.8%를 크게 하회했고, 6월에는 +5.8% 상승하며 코스피 -4.2% 대비 상대 강세 기록
- 2026년 초 대비 6월 코스피 12개월 선행 ROE는 12.0%에서 23.6%로 개선된 반면, 은행 업종은 8.6%에서 8.9%로 소폭 개선에 그침
-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 개선 기대와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은행주 강세 요인으로 작용
- 다만 ROE 개선폭은 제한적인 만큼, 하반기 은행주는 금리 수혜보다 자사주 소각 ·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이 핵심 변수

2025년 이후 코스피와 은행 업종 주가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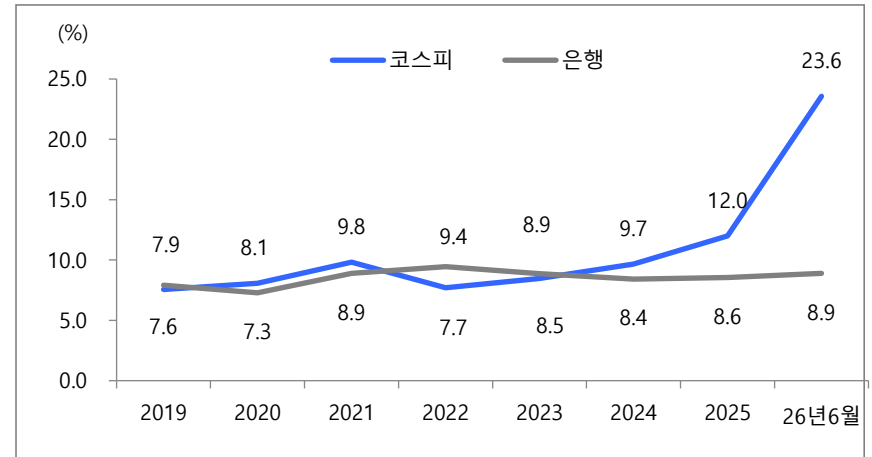
2025년 이후 코스피와 은행 업종 12개월 선행 ROE 전망 추이



은행주, ROE 정체에도 PER 할증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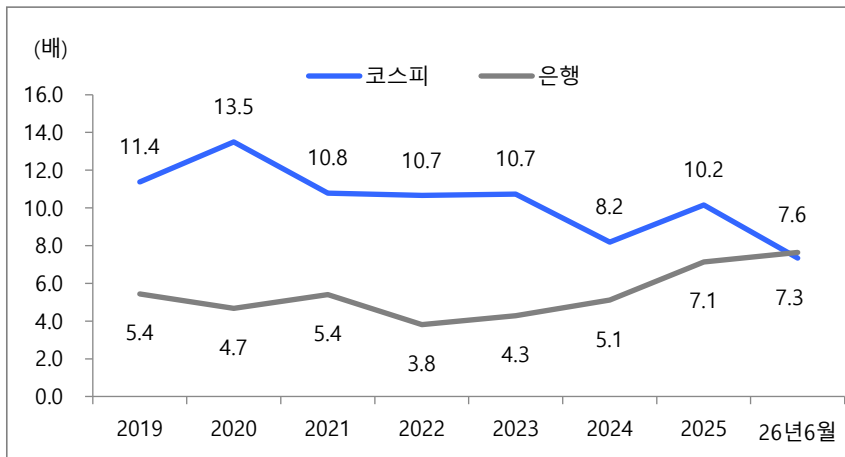
- 2019년 이후 은행주의 12개월 선행 ROE는 평균 8.5%로 코스피 평균 9.0% 대비 -0.5%p 낮았으나, 2026년 6월에는 8.9%로 코스피 23.6% 대비 -14.7%p 낮은 수준
- 반면 12개월 선행 PER은 코스피 대비 평균 52.5% 할인에서 2026년 6월 +4.1% 할증으로 전환되며, 금리 상승과 주주환원 기대를 빠르게 반영
- 12개월 선행 PBR은 코스피 대비 평균 55.1% 할인에서 2026년 6월 현재 -60.7% 할인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
- 은행주는 금리 상승과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재평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ROE 개선이 제한적인 만큼 향후 밸류에이션 정당화에는 이익 안정성과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

2019년 이후 코스피와 은행 12개월 선행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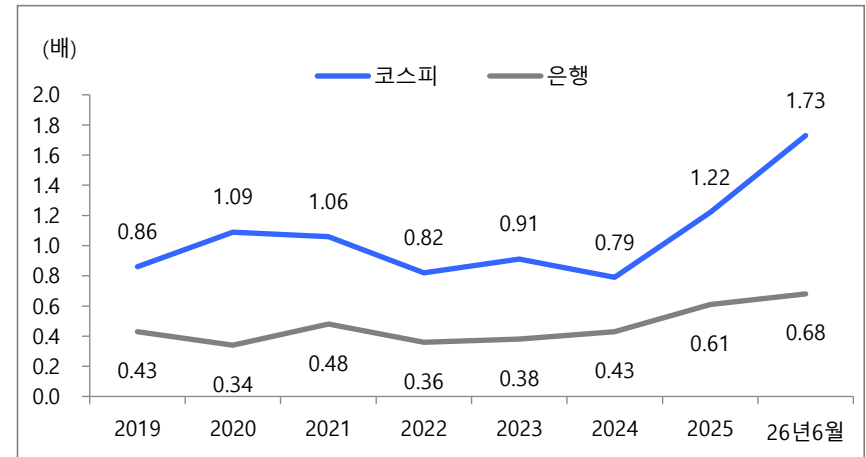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19년 이후 코스피와 은행 12개월 선행 PER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19년 이후 코스피와 은행 12개월 선행 P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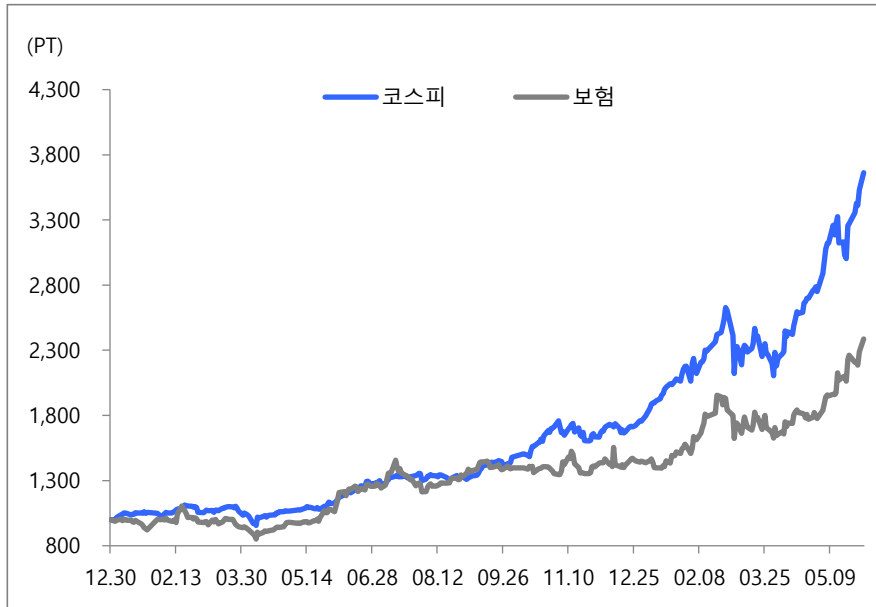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보험, 금리 상승 수혜에도 ROE 전망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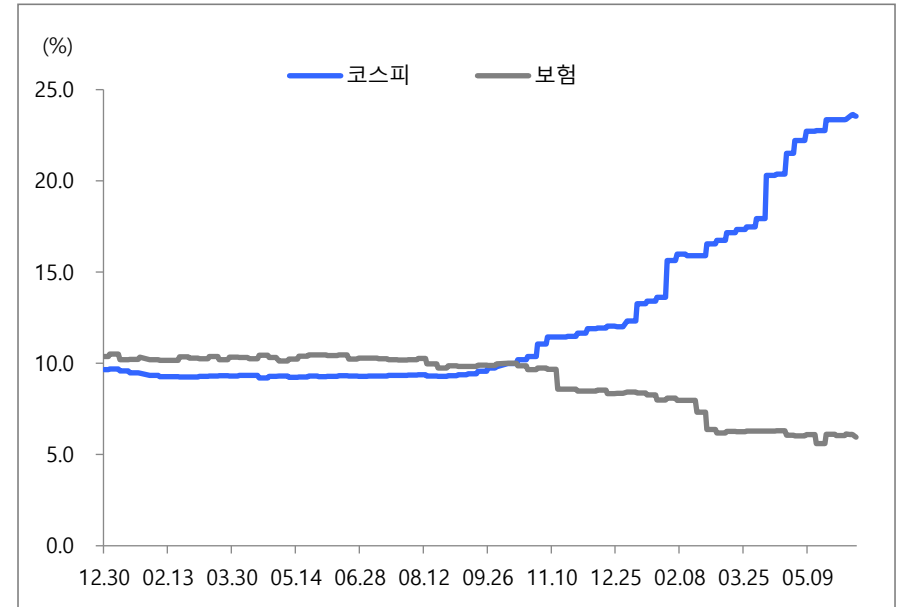
- 2026년 보험 업종은 +66.2% 상승했으나 코스피 +92.8%를 하회했고, 6월에는 +5.1% 상승하며 코스피 -4.2% 대비 상대 강세 기록
- 2026년 6월까지 코스피 12개월 선행 ROE는 12.0%에서 23.5%로 개선된 반면, 보험 업종은 8.4%에서 6.0%로 하락하며 수익성 전망 약화
- 최근 보험주는 금리 상승과 주주환원 기대를 바탕으로 반등했으나, ROE 전망은 하락세를 보이며 주가와 펀더멘털 간 괴리 확대
- 따라서 향후 보험주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단기 금리 모멘텀을 넘어 이익 전망 개선이 동반될 필요

2025년 이후 코스피와 보험 업종 주가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25년 이후 코스피와 보험 업종 12MF ROE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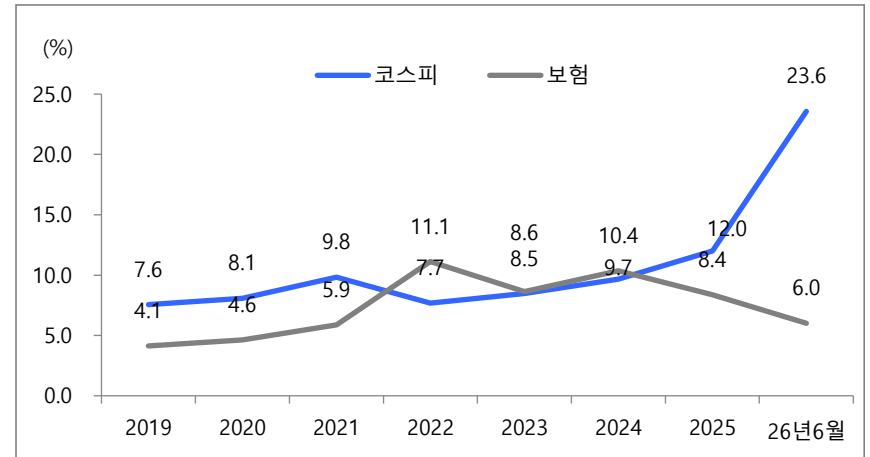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보험, ROE 하락에도 PER 할증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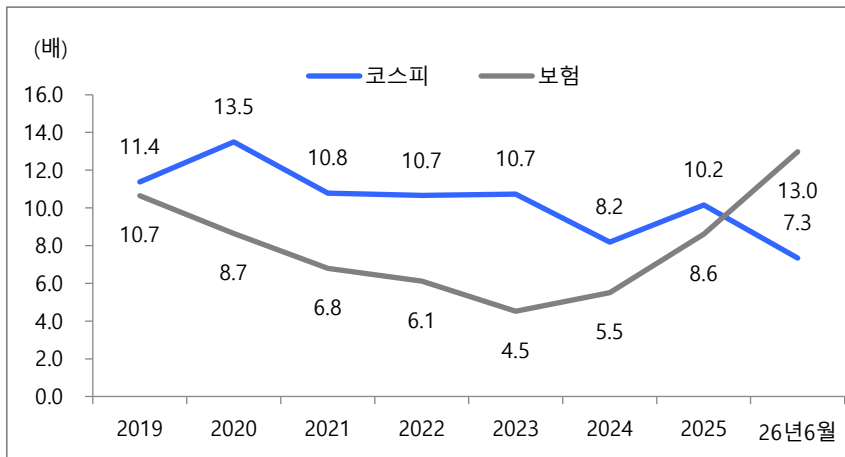
- 2019년 이후 보험 업종의 12개월 선행 ROE는 평균 7.6%로 코스피 평균 9.0%를 -1.5%p 하회했으며, 2026년 6월에는 6.0%까지 하락
- 반면 코스피 ROE는 23.6%까지 빠르게 상승하며, 보험 업종의 코스피 대비 ROE 격차는 과거 평균 -1.5%p에서 현재 -17.6%p로 확대
- 12개월 선행 PER은 코스피 대비 평균 -32.6% 할인 수준이었으나, 현재 +76.8% 할증으로 전환되며 밸류에이션 부담 확대
- 12개월 선행 PBR은 코스피 대비 평균 -46.7% 할인 수준에서 현재 -54.9% 할인으로 확대되었으나, ROE 하락을 감안하면 저평가 매력으로 해석하기는 제한적

2019년 이후 코스피와 보험 업종 12개월 선행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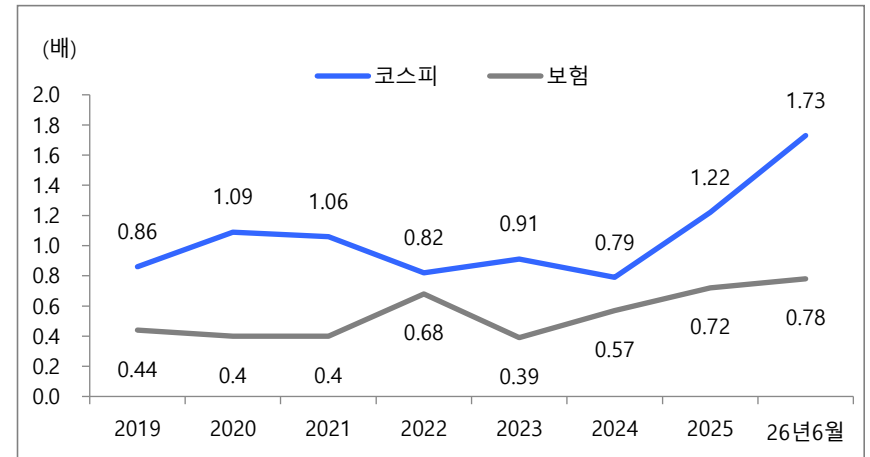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19년 이후 코스피와 보험 업종 12개월 선행 PER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19년 이후 코스피와 보험 업종 12개월 선행 P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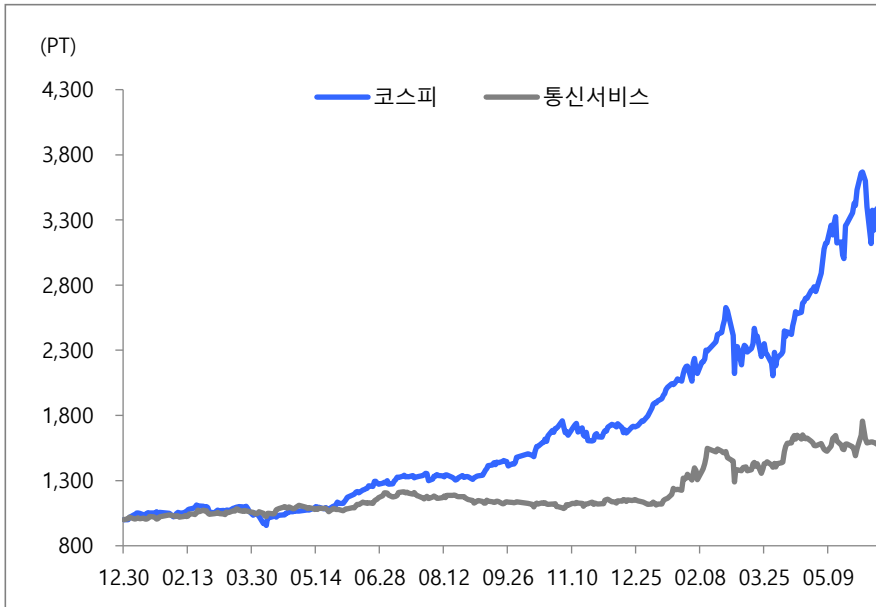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통신서비스, AI 기대에도 ROE 전망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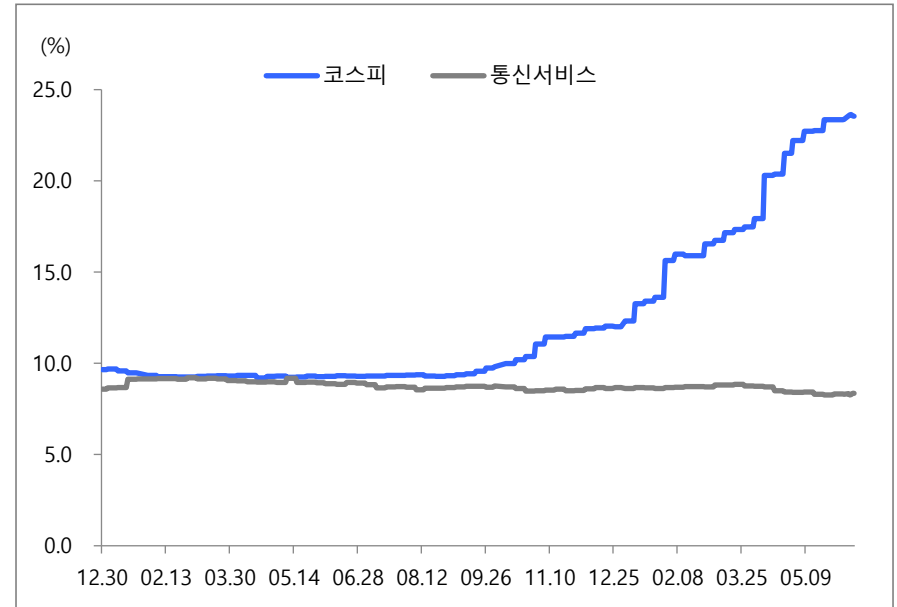
- 2026년 통신서비스 업종은 +39.1% 상승했으나 코스피 +92.8%를 하회했고, 6월에는 +2.2% 상승하며 코스피 -4.2% 대비 상대 강세 기록
- 2026년 6월까지 코스피 12개월 선행 ROE는 12.0%에서 23.6%로 개선된 반면, 통신서비스 업종은 8.7%에서 8.3%로 하락하며 수익성 전망 약화
- 최근 통신서비스는 AI 인프라 협력 기대와 방어주 성격이 부각되며 반등했으나, ROE 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펀더멘털 모멘텀은 제한적

2025년 이후 코스피와 통신서비스 업종 주가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25년 이후 코스피와 통신서비스 업종의 12M ROE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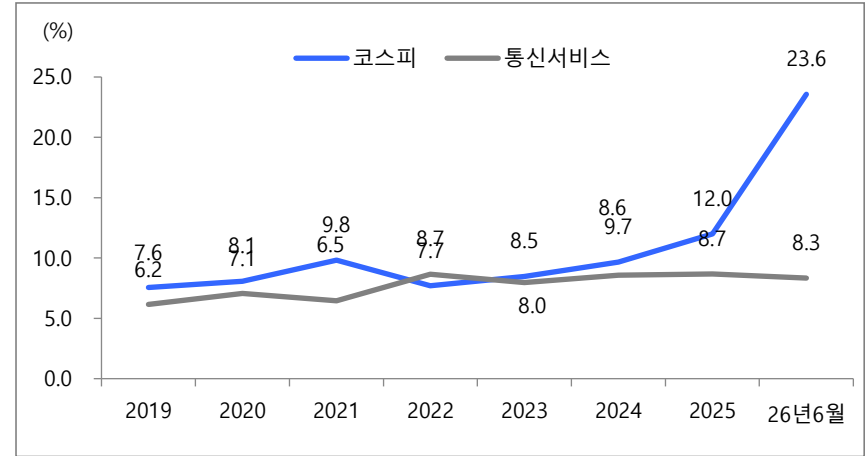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통신서비스, ROE 정체에도 PER 할증 부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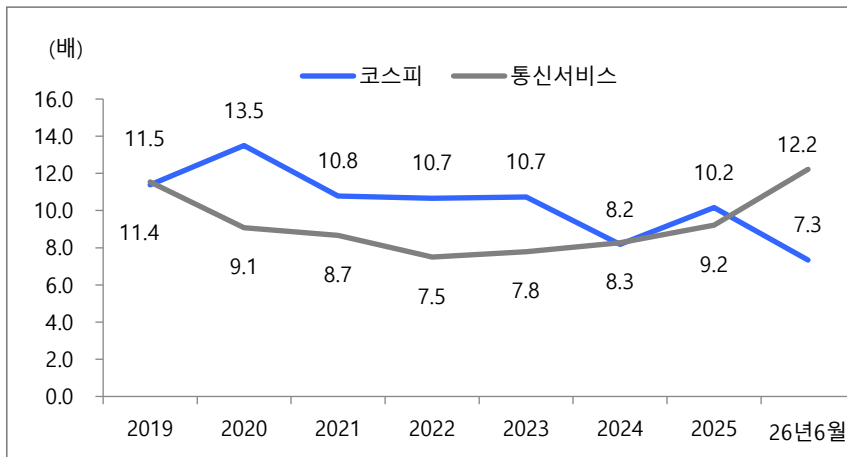
- 2019년 이후 통신서비스의 12개월 선행 ROE는 평균 7.7%로 코스피 평균 9.0% 대비 -1.7%p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6년 6월에는 8.3%로 정체
- 반면 코스피 ROE는 2026년 6월 23.4%까지 상승하며, 통신서비스와의 ROE 격차는 -15.2%p로 크게 확대
- 12개월 선행 PER은 코스피 대비 평균 -17.7% 할인에서 2026년 6월 +66.5% 할증으로 전환되며, 밸류에이션 부담 확대
- 12개월 선행 PBR은 평균 -30.5% 할인에서 2026년 6월 -41.9% 할인으로 확대되었으나, 낮은 ROE를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으로 해석하기는 제한적

2019년 이후 코스피와 통신서비스 12개월 선행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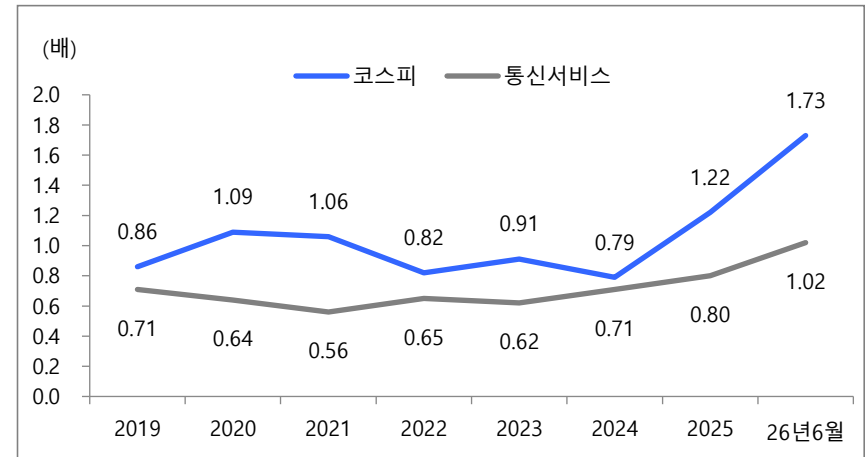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19년 이후 코스피와 통신서비스 12개월 선행 PER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19년 이후 코스피와 통신서비스 12개월 선행 P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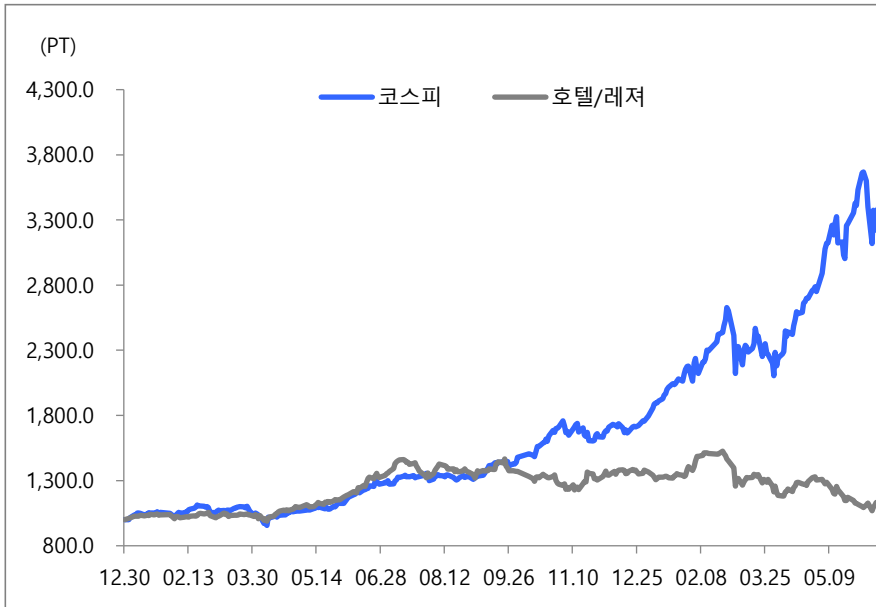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호텔/레저, 원화 약세 수혜 기대와 ROE 개선의 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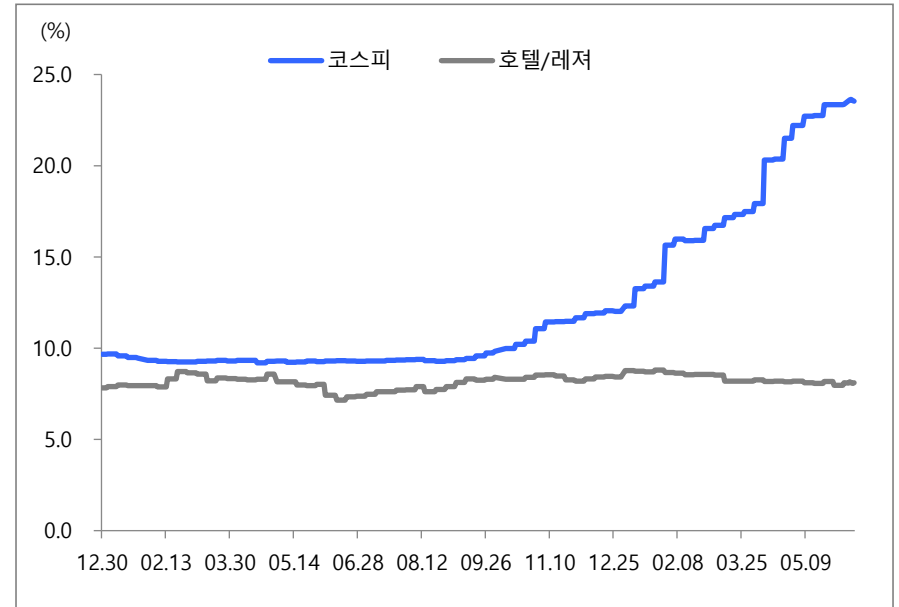
- 2026년 호텔/레저 업종은 -18.1% 하락하며 코스피 +92.8%를 크게 하회했으나, 6월에는 +1.2% 상승하며 코스피 -4.2% 대비 상대 강세 기록
- 2026년 6월까지 호텔/레저 업종의 12개월 선행 ROE는 8.4%에서 8.1%로 하락한 반면, 코스피 ROE는 12.0%에서 23.6%로 크게 개선
- 최근 호텔/레저 업종은 원화 약세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서울 주요 호텔 객실 수요 회복 기대가 반영되며 반등
- 다만 ROE 개선이 동반되지 않고 있어, 향후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관광 수요 회복이 실제 이익 전망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

2025년 이후 코스피와 호텔/레저 업종 주가 추이



자료: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25년 이후 코스피와 호텔/레저 업종 12개월 선행 ROE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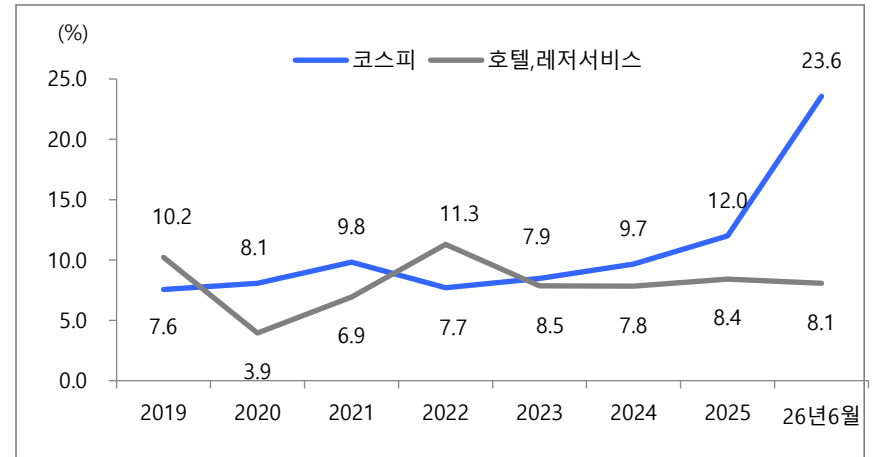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현대차증권



호텔/레저, 펀더멘털 확인 필요하나 밸류 부담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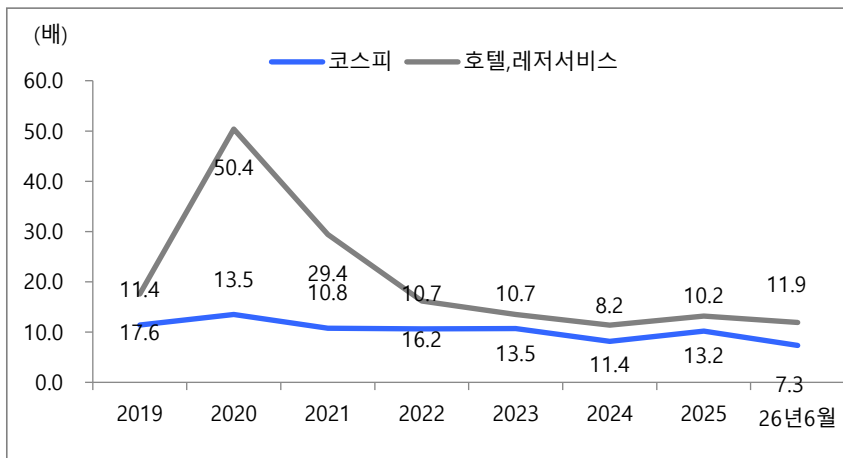
- 2019년 이후 호텔/레저 업종의 12개월 선행 ROE는 평균 8.1%로 코스피 평균 9.0% 대비 -0.9%p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6년 6월에도 8.1%에 그친 반면 코스피 ROE는 23.5%까지 상승해 격차가 -15.5%p로 확대
- 12개월 선행 PER은 코스피 대비 평균 +101.1% 할증에서 2026년 6월 +62.1% 할증으로 하락하며,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 12개월 선행 PBR은 코스피 대비 평균 +58.5% 할증에서 2026년 6월 -44.5% 할인으로 전환
- 호텔/레저는 ROE 개선 확인이 필요하나, PER · PBR 모두 과거 대비 부담이 낮아져 6월 강세 업종 중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2019년 이후 코스피와 호텔/레저 12개월 선행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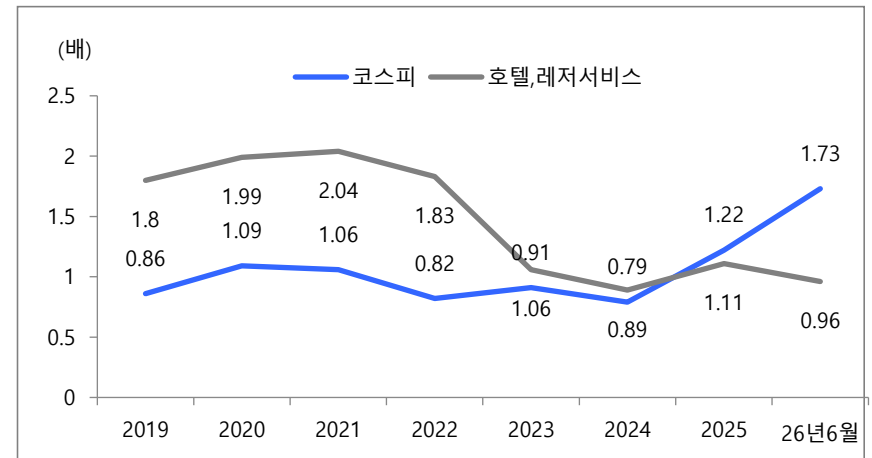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19년 이후 코스피와 호텔/레저 12개월 선행 PER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19년 이후 코스피와 호텔/레저 12개월 선행 PBR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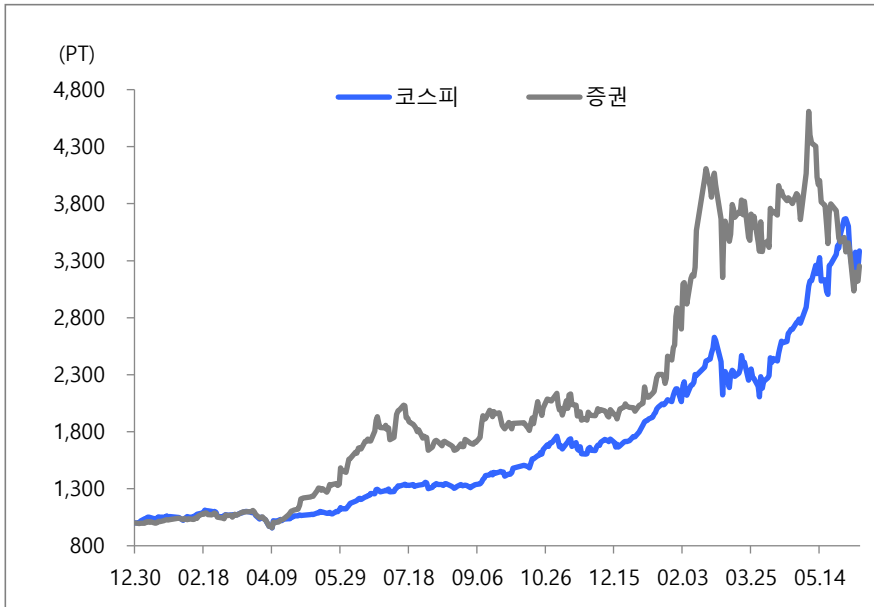


**하반기 관심 업종:
증권의 주주환원, 자동차의 피지컬 AI**

증권, ROE 개선에도 주가 조정으로 상대매력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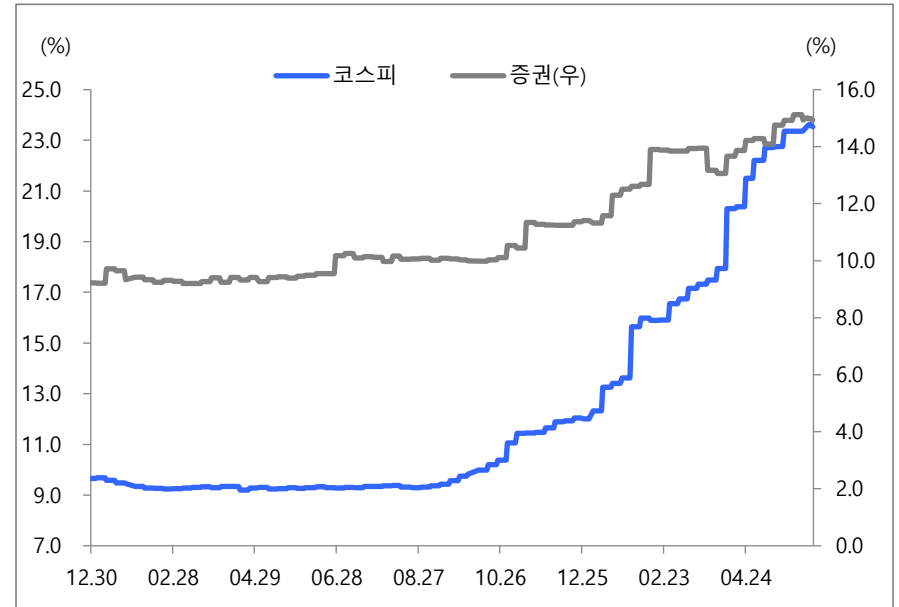
- 2026년 증권 업종은 +64.4% 상승하며 코스피 +92.8%를 하회했고, 6월에도 -6.2% 하락해 코스피 -4.2% 대비 상대 약세 기록
- 반면 증권 업종의 12개월 선행 ROE는 연초 11.3%에서 6월 15.0%로 빠르게 개선되며 이익 성장 가속화
- 코스피 상승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와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가 증권업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신영증권 자사주 소각 계획 등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까지 감안하면, 증권 업종은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재평가가 동시에 가능한 구간

2025년 이후 코스피와 증권 업종 주가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25년 이후 코스피와 증권업종 12개월 선행 ROE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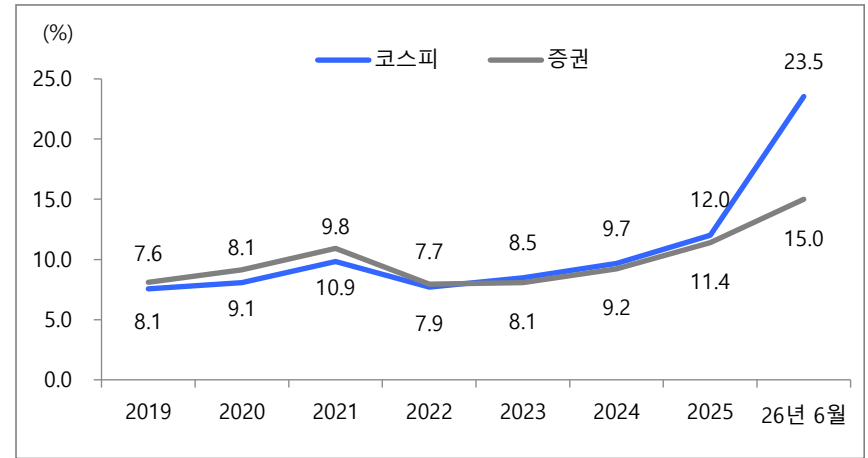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증권, ROE 개선과 밸류 부담 완화 동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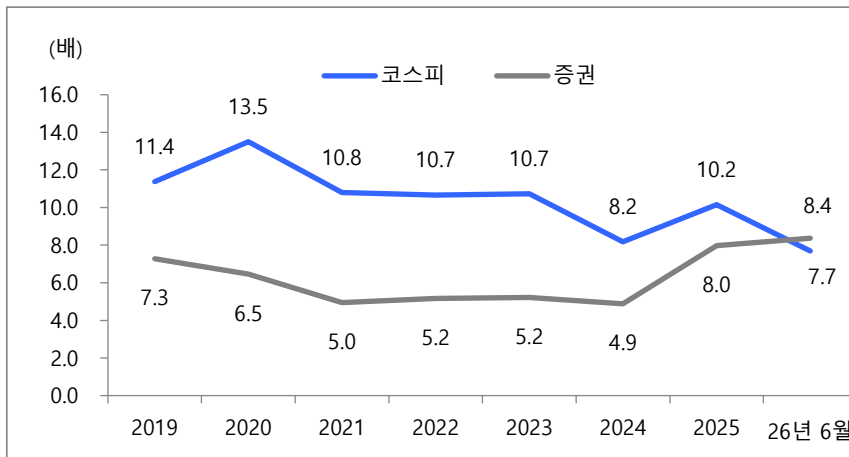
- 2019~2025년 증권 업종의 12개월 선행 ROE는 평균 9.3%로 코스피 평균 9.0% 대비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26년 6월에는 15.0%까지 상승하며 코스피와의 격차 +8.5%p로 확대
- 12개월 선행 PER은 코스피 대비 평균 -44.4% 할인 거래되었으나, 2026년 6월 현재 +8.8% 소폭 할증으로 전환
- 12개월 선행 PBR은 코스피 대비 평균 -42.1% 할인에서 현재 -30.9% 수준까지 축소되었으나,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은 구간
- 증권 업종은 ROE 개선, 거래대금 증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기대가 함께 부각되며, 하반기 차별적 재평가 가능성 보유

2019년 이후 증권 업종과 코스피 12개월 선행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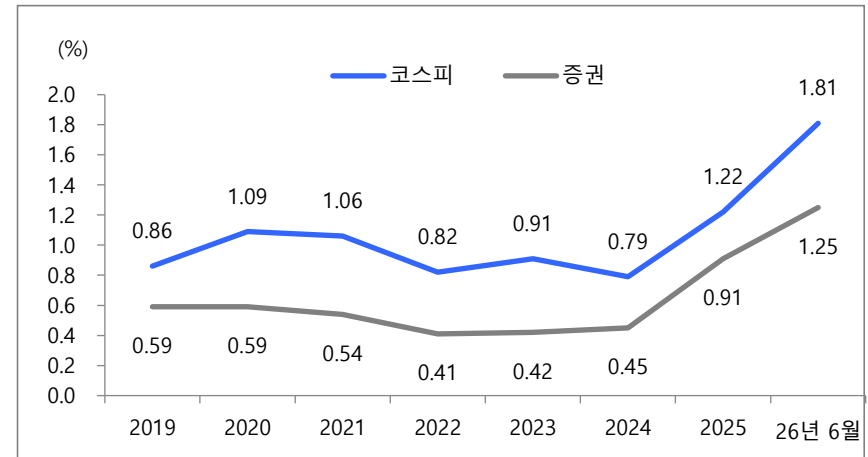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19년 이후 증권 업종과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추이



자료: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19년 이후 증권 업종과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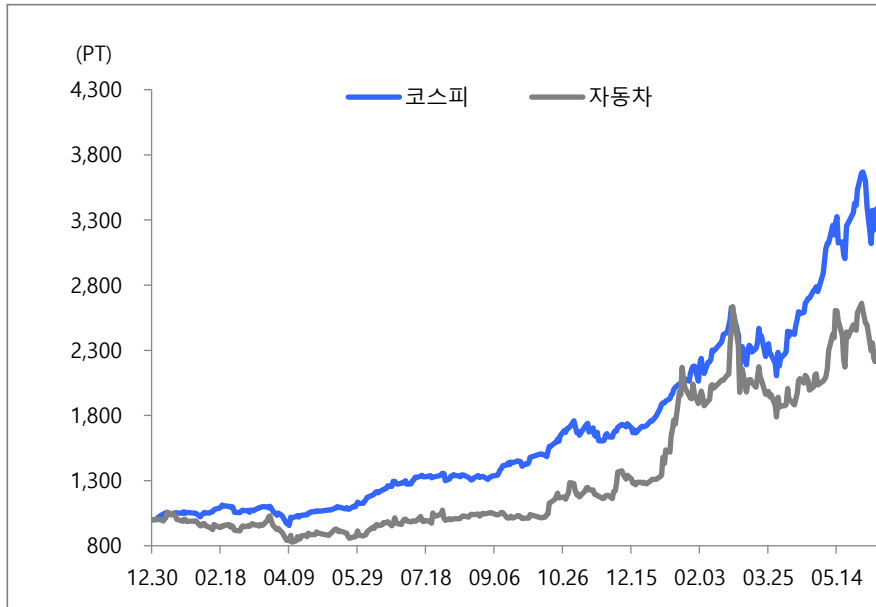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현대차증권



자동차, 주가 조정과 ROE 정체로 바닥권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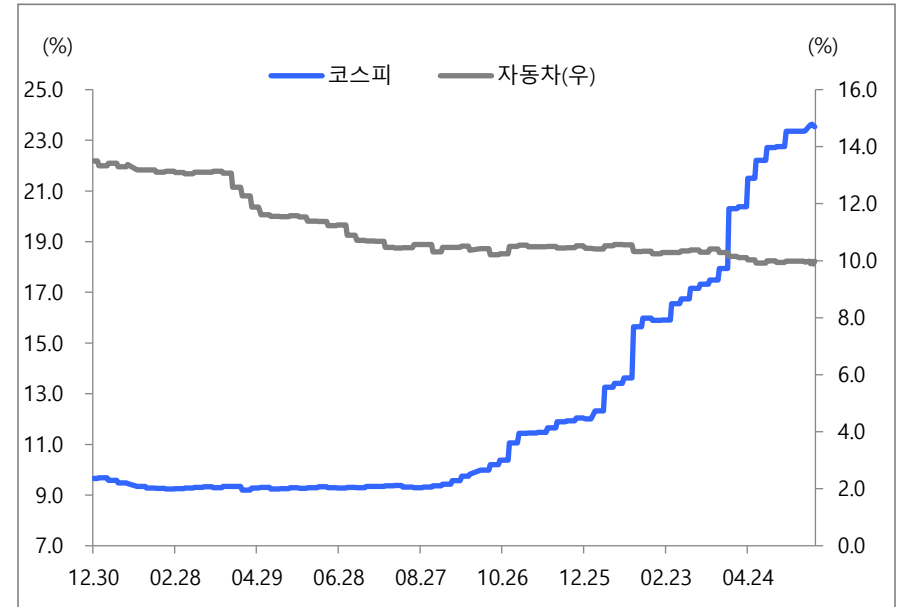
- 2026년 자동차 업종은 +74.8% 상승했으나 코스피 +92.8%를 하회했고, 6월에는 -11.6% 하락하며 코스피 -4.2% 대비 상대 약세 기록
- 자동차 업종의 12개월 선행 ROE는 연초 10.4%에서 6월 10.0%로 소폭 하락하며 수익성 정체 흐름 지속
- 반면 코스피 ROE는 12.0%에서 23.5%로 크게 개선되며, 자동차 업종과의 수익성 격차 확대
- 최근 주가 조정으로 자동차 업종의 기대감은 낮아졌으나, 향후 피지컬 AI·로보틱스 기대와 펀더멘털 바닥 통과 여부를 함께 점검할 필요

2025년 이후 코스피와 자동차 주가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25년 이후 코스피와 자동차 12개월 선행 ROE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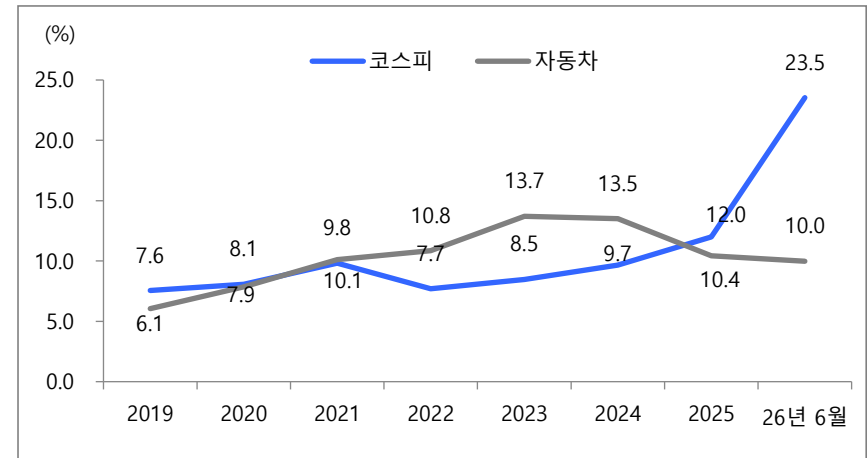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자동차, ROE 정체에도 PBR 부담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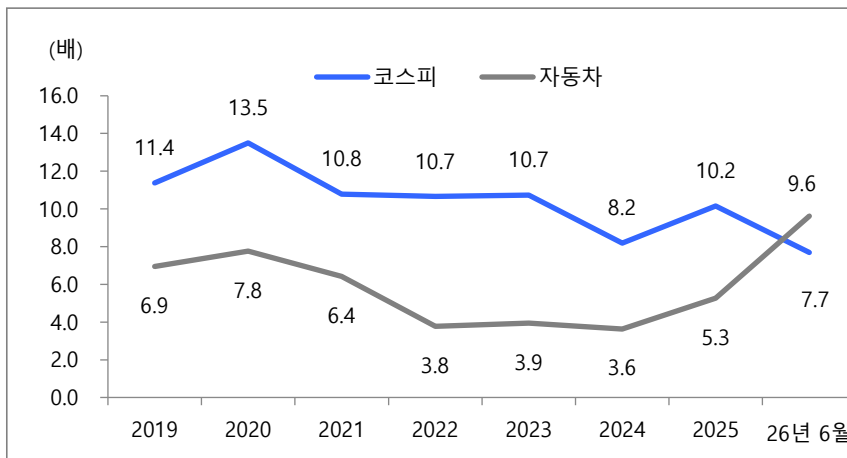
- 2019년 이후 자동차 업종의 12개월 선행 ROE는 평균 10.4%로 코스피 평균 9.1%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6년 6월에는 10.0%로 코스피 23.5% 대비 -13.5%p 낮은 수준
- 12개월 선행 PER은 코스피 대비 평균 -49.9% 할인에서 2026년 6월 +25.1% 할증으로 전환되며, 이익 전망 둔화에 따른 PER 부담 확대
- 반면 12개월 선행 PBR은 코스피 대비 평균 -45.6% 할인에서 현재 -47.0%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 유지
- 자동차 업종은 ROE 개선 확인이 필요하나, PBR 부담은 제한적이며 피지컬 AI·로보틱스 기대와 펀더멘털 바닥 통과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

2019년 이후 코스피와 자동차 12개월 선행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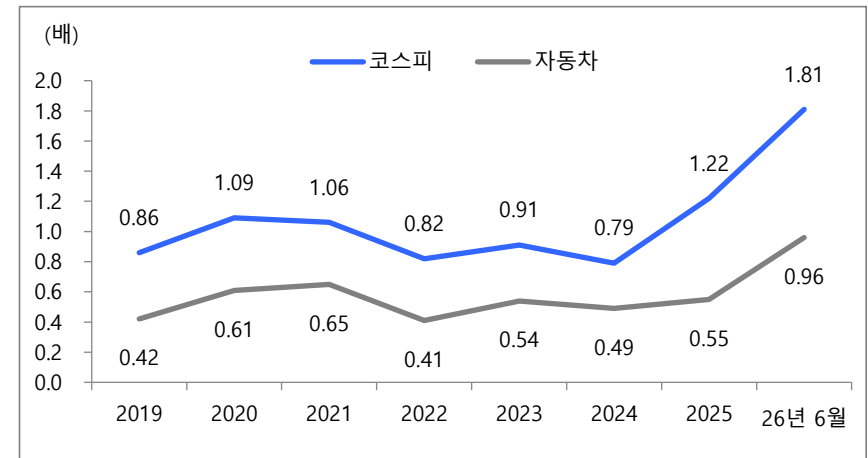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19년 이후 코스피와 자동차 12개월 선행 PER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2019년 이후 코스피와 자동차 12개월 선행 PBR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증권과 자동차 시총 상위 종목

- 06/12일 기준 2026년 연초 이후 코스피는 92.8% 상승했고 증권과 자동차 업종은 각각 64.4%와 74.8% 상승
- 증권과 자동차 업종 중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선별한 결과, 2026년 연초 이후 미래에셋증권(125.0%), 현대차(104.7%) 현대모비스(62.7%)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

증권업과 자동차 시총 상위 종목

No.	기업명	업종명	시가총액 (억원)	P/E (Fwd. 12M)	P/B (Fwd. 12M)	ROE (Fwd. 12M)	지분율 (%)	수익률(%)	
								2026년	2026년 6월
1	미래에셋증권	증권	29.3	14.9	1.84	12.4	21.5	125.0	-14.8
2	NH투자증권	증권	11.3	8.1	1.14	14.1	0.2	50.5	5.1
3	삼성증권	증권	10.6	6.8	1.11	16.3	0.0	57.6	-0.8
4	키움증권	증권	9.5	6.2	1.14	18.4	0.0	25.6	-1.9
5	신영증권	증권	3.1	N/A	N/A	N/A	53.1	39.4	8.7
6	대신증권	증권	1.5	8.6	0.49	5.7	25.0	9.6	-3.3
7	한화투자증권	증권	1.3	N/A	N/A	N/A	0.3	24.6	-4.4
8	현대차	자동차	110.4	124.3	14.67	11.8	49.5	104.7	-16.0
9	기아	자동차	60.1	65.1	7.48	11.5	30.5	36.9	-1.4
10	현대모비스	자동차	39.2	55.1	12.47	22.6	20.0	62.7	-21.0

주: 수익률은 6월 12일 기준, 증권 업종 지분율은 '26년1분기 기준 자사주 지분율, 자동차 업종은 HMG 지분율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GLOBALITY

6월 강세 업종은 선별, 증권·자동차는 대안 업종으로 관심

- 6월 강세 업종은 정책 기대, 금리 상승, 내수·관광 회복 등 개별 모멘텀이 반영되며 단기 순환매의 중심으로 부각
- 다만 백화점·은행·보험·통신서비스는 ROE 개선이 제한적인 가운데 PER 할증 부담이 확대되어 추가 상승에는 실적 개선 확인 필요
- 호텔/레저는 ROE 개선 확인이 필요하나, 원화 약세와 외국인 관광 수요 기대가 유효하고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도 제한적
- 증권은 ROE 개선과 주주환원 기대, 자동차는 피지컬 AI 기대와 펀더멘털 바닥 통과 가능성에 주목

6월 강세 업종과 하반기 대안 업종 투자전략

업종	이익 모멘텀	밸류에이션 수준	전략관점 핵심 포인트	비중전략
백화점	ROE 3.7% → 4.3% 소폭 개선	PER 부담 확대	소비 회복 기대는 유효하나 낮은 ROE와 주가 급등 부담	비중축소
은행	ROE 8.6% → 8.9% 정체	부담 소폭 확대	금리·주주환원 기대 반영, ROE 개선 제한	중립
보험	ROE 8.4% → 6.0% 하락	PER 부담 확대	금리 모멘텀은 유효하나 이익 전망 약화	비중축소
통신서비스	ROE 8.7% → 8.3% 하락	PER 부담 확대	AI 협력 기대는 있으나 수익성 개선 확인 필요	비중축소
호텔/레저	ROE 8.4% → 8.1% 정체	부담 제한적	외국인 관광 수요 기대 유효, 밸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제한	점진적 확대
증권	ROE 11.3% → 15.0% 개선	부담 제한적	거래대금 증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재평가	비중확대
자동차	ROE 10.4% → 10.0% 정체	PBR 부담 제한적	피지컬 AI 기대와 펀더멘털 바닥 통과 가능성	점진적 확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GLOBALITY

Compliance Notice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 작성자 김중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